

시선

사설

공사장이 된 캠퍼스 안전 대책 이상 없나

-녹원 조경공사 사고를 보며

지난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경, 서울캠퍼스 녹원 조경공사 현장에서 커다란 소나무가 도로를 가로질러 쓰러지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석재 벽면 철거 등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자 소나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이다. 방학 중인데다 교직원 퇴근시간도 지난 저녁 무렵에 일어난 일이어서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일이 만약 유동인구와 차량이 몰리는 퇴근 시간이나 개강 후에 벌어졌다면 자칫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사건이었다.

2학기 개강을 맞은 지금, 서울캠퍼스는 거대한 공사장을 방불케 한다. 개강 이후 오래지 않아 완료될 녹원 조경공사는 차치하더라도, 스페이스21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대운동장과 노천극장 일대에서는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 공사가 이어질 것이다. 자연히 공사차량의 출입도 빈번해질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지하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학내 차량의 동선 변경도 잦아질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 새로운 풍경이 기존의 일상 위에 덧씌워지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학교 측에서는 나름의 방안을 강구하며 대안을 세워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고는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몇 차례의 소나기로 족발된 지난 8월 28일의 소나무 사건처럼 말이다.

가령, 학교에서는 대다수 구성원의 주요 동선인 협뜰 고개의 도보통행을 금지하고 바로 옆 숲 속에 대체 동선을 조성해놓았다. 물론 이것은 공사차량 및 노천극장 임시주차장으로 향하는 학내 차량들의 동선을 감안한 보행자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동선, 즉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습적이고 지속적인 무의식적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협뜰고개는 지난 60여 년간 구성원들이 관습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온 학내의 중심 동선이며, 게다가 인위적으로 새롭게 조성된 '새 길'들은 장애인 접근성 등 여러 면을 감안해볼 때 기존 동선 대비 월등한 편의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예측컨대 개강 후에도 여전히 많은 구성원이 무의식적으로 협뜰고개 차로를 걸어 다닐 것이다. 하지만 스페이스21사업에서 안전문제를 포함해 모든 사항을 행정해야 할 단장직은 현재 공석 상태다. 이런 객관적 현실들은 '몇 차례의 소나기'처럼, 매우 일상적이면서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특정 요인의 중첩 속에서 언제든 큰 사고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경희 구성원이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학교 측은 예상 가능한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표지판 설치와 같은 수동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체화된 구성원들의 인식과 감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인상적인 캠페인을 펼치는 등의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구성원 안전문제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연에 방지해갈 수 있을 것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형강의 사라진다

미디어 여론동향 2015. 8. 17 ~ 8. 30

여론동향팀 khunews@knu.ac.kr

2015학년도 2학기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에서 개설되는 강의 중 온라인 특강과 체육 강좌 외에는 '대형 강의'가 사라질 전망이다.(2015학년도 2학기 후마 대형강의의 사라질까/대학주보 온라인, 2015.8.26) 서울캠퍼스(서울캠) 후마의 대형강의는 2013학년도 2학기 1강좌를 시작으로, 2014학년도 1학기에는 38개로 크게 늘어났다. 후마 측은 "학교 재정 문제로 부득이 대형강의를 운영했었다"며 "하지만 여러 문제점과 학생, 교강사의 불만으로 인해 곧바로 줄였다"고 밝혔다.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수를 대폭 줄여온 대형강의는 이번 학기에도 최대한 개설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일반



이주의 주제 - 수강신청 강의 시간표 변경

강의 시간표 변경 시, 피해 최소화 해야

최병현
(기자)

수강신청은 학생들의 한 학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벤트다. 수강신청에 성공했는가 여부에 따라 아침잠 1시간이 있다 갔다 하고, 한 학기의 모든 일정이 통째로 뒤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수강신청 기간 동안 수강시간표 관련 글이 넘쳐나는 SNS 화면과 수강신청 당일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는 학교 주변 PC방의 풍경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버렸다. 급기야는 강좌가 돈으로 거래되는 일도 왕왕 발생한다. 그만큼, 수강신청과 관련된 문제는 학생들에게 예민한 화두인 것이다.

'경영대학의 전공시간표 변경' 문제를 짚어보며 우리학교의 행정시스템이 수강신청에 대한 학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실제로 수강신청 직전 폐쇄되는 강좌들이나 강좌 시간표와 교강사가 소리 소문 없이 변경되는 사례들은 매 학기 빈번히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단과대학 행정실은 항상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번에도 다를 바 없었다. 희망과 목표 기간이 끝나면 바꿀 수 없다. 이를 토대로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들의 불이익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반응은 자못 뜻밖이다. 취재 도중 듣게 된 관계부서 모 관계자의 발언 내용

은 다음과 같았다.

"희망과 목표 달기는 강좌 수요 예측이 목적일 뿐이다. (부수적 효과로) 수강신청에서 편의를 제공했는데, 그 편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취재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

해당 사안에 대해 단과대학별 현황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강좌 변경-폐강에 관한 공지내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심지어 몇몇 단과대학의 경우엔 "폐강 및 강좌 시간 변경을 그때그때 처리하기에 따로 강좌 리스트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율운영제도의 시행으로 주요 학사업무가 단과대학에 이관됨으로써 신속하고 능동적인 의사 결정과 단과대학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학사지원과의 바램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모든 단과대학의 학사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문과대학의 경우 피해사례 접수 시 최대한 다른 수업을 배정하고, 수강신청 이후 변동에 대해서는 해당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의 동의를 구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문제는 단과대학 별로 상이한 행정처리와 학사지원과의 체계적이지 못한 지원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단과대학 중심의 업무'라는 말로 포장하는 학교 측의 나타난 태도에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단과대학에 이관된다'는 말이 업무 떠넘기기가 아닌 진정한 '효율운영제도'로써 자리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의의 정원 수를 5~10명 정도로 소폭 늘리는 방안을 취했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자치회비 내역을 밝혀달라'(#경희숲_10555, 2015.8.26)는 글이 화제였다. 이 글에는 49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글쓴이는 '여태까지 계속 냈었지만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선뜻 계속해서 내가 내기지 않았다'며 '국제캠 종 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도 공식적으로 언급해달라. 자치회비 사용내역을 왜 안올리는지, 왜 아직까지 입을 닫고 있는지 알고싶다. 또한 단과대학 학생회비 사용내역도 궁금하다'고 적었다. 댓글로 '자치회비 보이콧이라도 해야 하나 알려주려니'라는 의견이 달렸다.

글로벌센터는 졸업을 맞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4년 전 입학 당시 썼던 '졸업식 날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되돌려줬다.(경희대, 외국인학생에 4년전 '졸업하는 나에게 쓴 편지' 전달/뉴스1, 2015.8.24) '졸업식 날의 나에게 쓰는 편지'는 2011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때 쓴 편지로 그동안 글로벌센터에서 보관해왔다. 당시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학생 68명이

참여했다. 편지를 돌려받은 외국인 학생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낯설고 무섭기만 했던 1학년 시절에 쓴 편지를 지금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학교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고령사회 선제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친고령특성대학원'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오는 9월 개원한다.(親노인 대학원 생긴다, 경희대 친고령특성화대학원 출범/한국대학신문 2015.8.26.) 올해부터 5년간 정부 지원과 더불어 학교 측은 친고령특성대학원에 약 44억 원을 투자해 100여 명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질환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을 벗어나 노인의과학·의학·한의학·사회복지·영양학·주거학 등 융합적 교과과정 운영으로 최종 목표인 한국형 모델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인원 총장은 "건강노화 전문대학원, 건강노화 직업정보센터, 건강노화 교육센터 등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실질적인 융합을 토대로 한 노인학전문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다가온 당신의 '가을'에 열정이 깃들기를

세시봉

이시은 <뉴스팀장>



쌀쌀해지는 날씨를 보며 졸업까지의 대학생은 사계절과 같다고 느꼈다. '봄'에 입학한 학생은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학교 이곳저곳을 누빈다. 그동안 얹어왔던 족쇄들이 한 번 풀어지는 시기로 다가오기도 한다. 시간이 흐른 뒤 '여름'의 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공간이다. 캠퍼스의 친구들과 눈인사하며 학교 주변 맛집도 모르는 곳이 없다. 하지만 '가을'부터는 느낌이 다르다. 다가올 현실에 대비하며 '겨울'을 기다리는 준비의 시기다. '겨울'로 남을지 '새로운 봄'이 될지는 저마다의 준비에 달렸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사계절 중 '가을'에 관한 것이다. 준비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가을'의 가치는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요즘 캠퍼스의 '가을'은 빠르게 다가오는 듯하다. 이전의 여유는 찾아볼 수 없고 모두들 현실에 일찌감치 얹매인다. 혹자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자꾸만 어려워지는 세상의 씁쓸한 단면이다.

지난 달 16일 우리 신문이 만나봤던 '방학을 보내는 학생들' 역시 이러한 세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학생들은 '스페 쌩기'에 열중했다. 영어회화, 어학시험, 자격증 취득 등 땀내야 할 '스페' 또한 끝이 없었다. 지난해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방학 중 사교육비는 월 평균 75만원으로, 고교 사교육비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취업 사교육비 역시 전년대비 5.3%의 증가폭을 보여 학생들이 쉴 틈 없이 학원가로 몰리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피로한 청춘의 기다란 그림자다.

사계절 같은 대학생의 일생

당신의 가을은 찬란하다

이런 상황에서, 숨 가쁘던 방학을 보내고 이제 2학기를 맞이하는 당신의 자세는 어떠한가 감히 묻고 싶다. 힘들 것이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이다. 각종 언론에서 쏟아내는 경제난과 취업에 관한 이야기들은 내일로 향하는 하루, 하루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할지도 모른다.

기자 역시 조여 오는 암박감에 시달리며 학점과 스펙에 한숨짓는 한 명의 학생일 뿐이다. 이뤄놓은 것 없는 것 같아 슬프고 졸업 후의 미래 때문에 잠 못 이룬다. 주위 친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토로한다. '힘들다', '불안하다', '지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곤에 절은 몸을 일으킬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는 당신을 보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 수많은 땀을 흘린 당신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한걸음을 더뎌보자. 지치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잡고 강의실 문을 열어보자. 멈추지 않고 달려온 우리들의 모습은 나중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더욱 아름다우리라 확신한다. 싱그러운 '봄'과 역동하는 '여름' 만큼,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가을'도 어느 계절보다 값지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n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